

보시하는 자는 공덕을 얻고,
 자심(悤心)을 지나는 자는 적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악이 소멸하고,
 탐욕을 버리는 자는 고뇌가 없다.
 -대반열반경-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인도에 심는 '자비의 인술'

부처님 재세 당시 마가다국의 재상이자 빽비사라왕의 전의(典醫)였던 지바카(耆婆, Jivaka)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 주고, 남쪽 나라의 포악한 임금의 병을 고쳐 주는 등 탁월한 의술을 베풀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세존의 풍병, 아나올의 귀머거리, 아난의 창병 등을 치료하여 의왕(醫王)으로 존경받았으며, 승가에 명교과수원(기바동자정사)을 보시해 많은 불제자들이 이곳에서 수행하게 했다.

이 같은 의왕 지바카의 뜻을 되살리는 병원이 3천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인도의 천민부락 주민들과 한국 불자들에게도 건립돼 혼란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국제 기아 질병 문맹 퇴치 민간구호단체인 한국JTS이사장 법륜·Join Together Society가 10일 인도 비하르주 동게스 외리 지역에서 문을 여는 지바카병원 의료시설이 전무한 동게스 외리 인근 16개 현민 마을의 1만여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2년간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이 병원은 병원 부지와 노동력을 지역주민들로부터 기증받아, 민간 자원의 국제구호활동의 모범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지바카병원이 세워진 동게스 외리 지역은 10여년전부터 JTS가 구호활동 및 교육사업, 마을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JTS는 7년전 이 곳에 학생 600명, 교사 12명 규모의 수자



타카카데미를 설립하고 16개 마을마다 부설 유치원을 만들어 교육사업을 시작했으며, 임시 메디칼캠프를 설치해 긴급 의료 지원활동을 벌여왔다.

오염된 식수 등 불결한 환경에서 야기된 콜레라와 결핵 등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마을마다 폐죽음을 당하곤 했던 천민부락 주민들에게 건강검진과 각종 의약품 지원 등 의료지원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인명을 구해 왔다.

7만이면 어린이 50명에게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 예방이 가능하기에, 불자들의 후원과 의료자원봉사가 절실하다"는 게 이곳 자원봉사자들의 호소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비행으로 회향한 지바카병원 개원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벗어나 세계일화(世界一化)의 정신으로 세계 곳곳의 어려운 곳에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자원봉사 대국이 되길 기원해 본다.

김재경 <취재1부 기자>

자원봉사 교육·관리 교계 두손 놓고 있다

복지시설 오리엔테이션 수준 교육 불자련 회원 3400명 수작업 관리

불교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자원봉사자 관리와 교육, 자원봉사단체간의 상호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올해 유엔이 정한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본지가 불교 자원봉사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자원봉사자 및 수요는 계속해 늘고 있는 반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교육하고 활용하는 구조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곳은 조계종 복지재단과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두 곳이다. 공식·비공식으



부처님 되신날 '축하' 2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서울 봉선사의 스님과 신도 400여명이 연등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 사찰에서는 성도절 법회를 봉행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생사의 고행에서 벗어나 중생을 구제하고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서원했다.

국방장관 "선도책자 깊은 유감"

종편위에 공문... "재발간 조계종 의견 반영" 기하되, 수정보완하여 재발간 배포할 책자를 선도업무 지침서로 활용토록 조치하겠다"며 "책자를 재발간하기 위해 종교간 동수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조계종의 견해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3월 내에 책자를 재발간해

현대불교 올 10대사업 불국토 앞당깁니다

새해 현대불교신문이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으로 독자여러분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평범의 세상, 함께 하는 세상, 정보가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현대불교신문의 캠페인과 기획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개집의 세상을 위하여**
 - ◇ "대장경을 읽으시다 대장경을 봉안하십시오" 동국역경원과 손잡고 한해 동안 실시할 이 캠페인은 동국역경원이 36년에 걸쳐 완성한 <한글대장경전(30권)>을 보다 많은 불자들이 읽도록 하는 동시에 사찰 등에 법보로 봉안할 것을 권유하는 캠페인입니다. 조계종과 불교종단협의회가 후원하는 이 캠페인을 통해 대장경, 장경각판대장경 전승세가 보급 사업도 활발합니다.
 - ◇ 도난문화재 찾기 캠페인 전개 경찰청의 후원으로 전개하게 될 도난문화재 찾기 캠페인은 기획 기사와 일간 부다피아 부다피아 정보센터, 마하물에 도난문화재의 목록, 사진 등을 공개해 도난문화재 회수에 일조하고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킬 것입니다.
 - ◇ 제7회 신행수기 공모 향간 이후 매년 전개해 오고 있는 신행수기 공모는 허를 거듭할 수록 감동적이고 신선한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금년 일간 부다피아 공모에서는 시상 분야와 참여 계층을 보다 다양화하여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발굴하겠습니다.
- 함께하는 세상을 위하여**
 - ◇ 화상 무료법률상담 생활 현장에서 겪게 되는 법률적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법률상담의 권위자 이종우 변호사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1대 1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는 2월부터 전국 한미음선원의 지원에 관련 장비를 갖추고 독자들의 법률상담 신청을 받게 됩니다.
 - ◇ 테마여행 3월부터 다시 실시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전국 유명 지역축제와 인근 사찰 및 역사유적, 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테마 여행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전개합니다.
 - ◇ 제4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4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7월말 실시는 어린 불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부처님의 품속입니다.

2면으로 계속

천태종 12대 총무원장 윤덕스님 유임

천태종 제12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인 윤덕스님이 유임됐다. 윤덕 총무원장을 비롯 덕산 총회위원장, 정산 감사위원장 등 3원장은 구말 28일 개최된 62차 임시총회 인준을 거쳐 29일 구인사에서 동종 종정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4년이다.

윤덕 총무원장은 이번 유임에 따라 81년 1월 7대 총무원장에 임명된 이래 5대째 계속해서 총무원장을 역임하게 됐다. (관련 기사 3면)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배포할 예정이다. 조장관은 이어 "이를 계기로 유사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번 사건 관련자는 군중윤리위원회와 군중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교평화대책위는 "종교연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의 책자를 즉각 폐기하지 않고 재발간할 때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은 불교를 유습계 보는 처사라며 "이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새천년의 발원 - 손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한이 인물은 최고 불교와 가운데를 지킵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림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육각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만월등

인공일 제즈티어(특어 제122168호) / 광각등 실승신인(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디수 보유업체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훈공동 180-1